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죽는 공부가 쉽지 않아요

질문 공부를 할 때는 일단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죽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살아나고 살아나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딱 죽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우주 전체의 생활이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이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이는 거라고요, 그걸 알면. 한군데다가,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마음을 내기 이전은 기름과 같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바로 법이 되고, 그러니까 몸이 움죽거리는 건 차와 같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하나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공했다고 하고 그거를 놓고 가는 거라고 하고 그거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사이에 아내가 와서 "여보!" 그런다면 바로 남편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는 "아빠!" 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죠. 그런 많은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찰나찰나 이렇게 아버지, 남편으로 착을 두지 않고 지금 그대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알면 바로 죽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 놓고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냥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항상 그게 지금 습관에 의해서, 물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항상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러기 때문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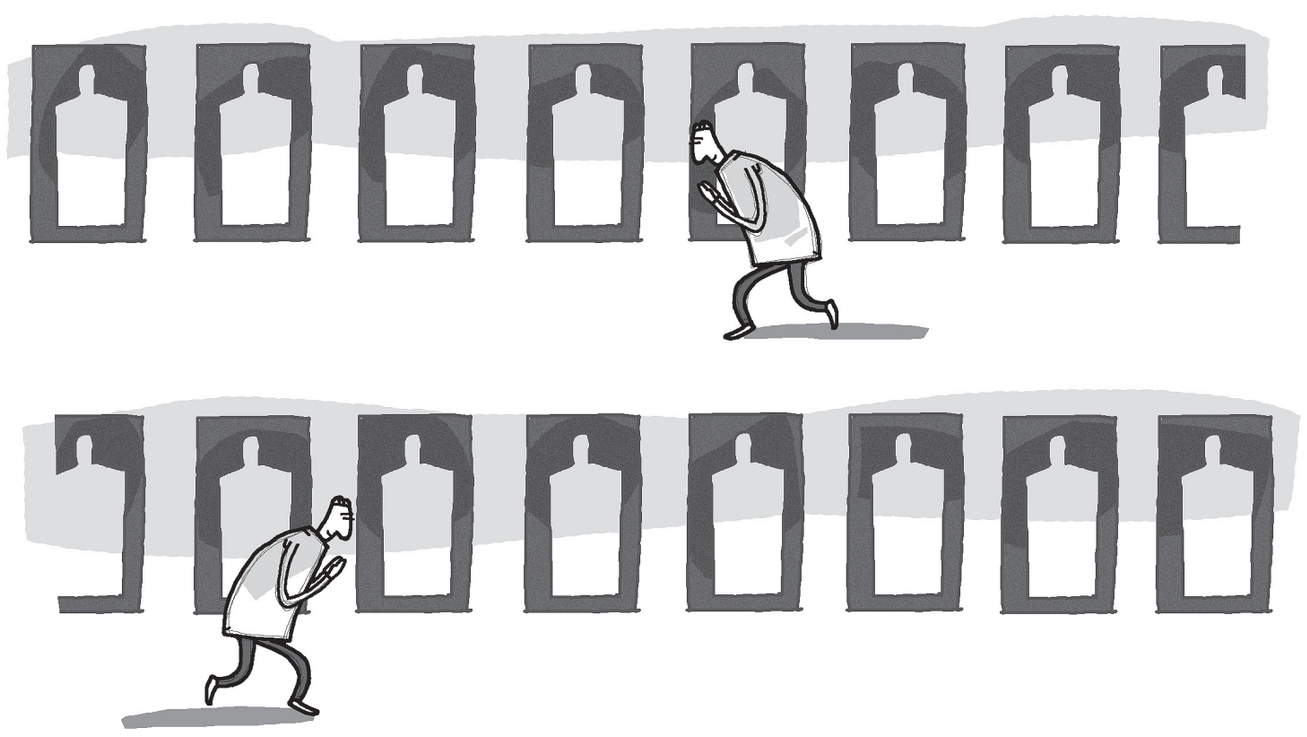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내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현실에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짊어지고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뚱이 속에, 즉 말하자면 그 많은 생명이 13억이라고 해도 고건 간단히 추린 건데, 그 의식이 만약에 한마음에서 수만 개도 나올 수 있으니깐 그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의식들이 내 한마음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따라 주고 언짢게 생각하면 언짢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남과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도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익하게만 생각한다면 그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그 이익한 데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숙명통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말할 때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현실에 이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는 우환이라든가 어떤 안 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체를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과거의 모든 그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다 좋게 바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거를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이는 거며, 바로 입력을 다시 되시키는 거며, 앞서 입력된 게 다 없어지는 거며, 동시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던 게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거기 맡겨 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서의 입력된 팔자나 운명은 다 녹아져 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광대무변한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을 깨달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이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하게 돼 있나. 우주 천하 만물만생이 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는 것은 생각에, 마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바로 요런 거다 하고 모르면, 귀도 먹고 그러면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다 보면 벗어나게도 되겠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차원에 따라, '전체가 차원이 크고 작은 관계상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도 백지장 하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일체 만법, 생활을 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다. 대신 가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게 되고, 그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아는 거, 알려고 하는 거, 이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